

정인경, 『뉴턴의 무정한 세계: 우리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과학사』 (돌베개, 2014), 280쪽.

이관수†

정인경은 책의 부제에 걸맞게 서구 과학 기술의 형성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수용도 함께 다룬다. 후자는 주로 금세기에 이루어진 일제 강점기 한국 과학사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근대 소설 읽기가, 다른 한쪽에는 지금 유통되는 과학 대중서 번역본 이야기들이 배치되어 어우러진다. 저자는 통사 서술을 지양하고, 현대 한국인이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뉴턴, 다윈, 에디슨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과학 기술에 집중하였다. 각부의 제목들—“뉴턴의 무정한 세계”, “다윈의 잔인한 표본실”, “에디슨의 빛과 그림자”, “아인슈타인의 휘어진 시공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서술의 초점은 일제 강점기에 그들의 과학 기술이 어떤 맥락으로 조선의 식자층에 다가왔는지에 맞추어져 있다.

이 책은 우리 과학사 학계의 연구들을 보다 넓은 독자들에게 소개한다는 측면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서구의 역사와 함께 엮어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도 반가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취를 거두기도 했다. 서구의 과학 기술도 국소적인 맥락에서 끊임없는 교섭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간과했다는 옳은 지적도 있으나,¹ 식민지 조선인에게 비추어진 과학 기술의 모습을 묘사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감안하면, 무척 아쉽기는 해도 치명적이지는 않은 흠결일 것이다. 더구나 뉴턴 과학, 진화론, 전기학과 전기 기술, 현대 물리학의 내적 형성 과정을 간결하지만 충분히 상세하게 요약했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모습의 일부가 문학과 과학 기술, 그리고 민족의 역정이 얹힌 하나의 덩어리에서 비롯되었음을 독자들이 느끼게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적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ksleeyz@gmail.com

1 이두갑, “과학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정하게 되었나: 정인경, 『뉴턴의 무정한 세계』, 돌베개, 2014”, 『창작과 비평』 167 (2015, 봄), 412-415.

극적으로 과학 기술 너머의 역사를 포섭하려한다는 점에서 한국인이 쓰는 한국 과학 기술사 서술이 추구할 여러 좋은 길 중의 하나를 열었다.

하지만 이 책의 문제 의식이, 그러한 성취를 이룩할 수 있게 한 시야의 한계를 노출한다는 점은 비극적이다. “한국인이 과학사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11)을 담았다는 언명에서 “한국인”과 “과학[기술]”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무래도 그는 “과학을 잘 모르면서 과학을 믿는” 조선인/한국인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기하학과 뉴턴 과학을 곁핍기로 배운” 시인 이상(李箱)의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에서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까지의 현대 물리학 이야기와 엮어 풀어낸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민지 시기에 서양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문명화’는 해방 이후에 ‘근대화론’으로 대체되었고, 식민 지배의 도구였던 과학 기술은 서양의 근대화를 따라가기 위한 도구로 바뀌었다. 오늘날까지도 과학 기술은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70).

과학 기술, 좁게는 과학이 단지 도구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저자는 몇몇 대목에서 과학의 인문적인 함의를 이야기한다. “과학은 인문학이 직관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12).” 식민지 조선인들은 자연이 무정하고 목적 없다는 과학의 함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과학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근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공감하는 언명이지만, 그 시야에 동의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식민지 경험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과학 기술에 대한 곡해나 “공장의 기계가 우리의 피로 돌던”(194) “처참하고 열악한”(198) 환경과 고통에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저자는 중심부의 시각으로 중심부를 이야기하거나 주변부를 논하는 번역 과학서들의 관점을 극복하려고 적극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 대서구와 일본의 구도로, 즉 주변부 대 중심부의 축으로, 그것도 주변부의 질곡과 중심부의 광영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시야가 자꾸 회귀하는 것이 슬프다.

춘원 이광수와 이상이 과학을 곡해했다면, 식민지 시절의 일본 사회는 어떠했을까? 일제도 과학을 소위 가치 중립적으로, 근대화의 도구로 본 것은 마찬가지로 아니었을까? 나아가 현대의 미국 사회와 서유럽 사회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또 주변부에서 나름 분투한 브라질이나 태국의 경험은 어떠했을까? 인도 사회에서 근대 과학 기술은 어떤 맥락에서 존재하고 전개되었을까? 우리의 경험이 이들 ‘주변부’ 국가와 일대일 대응될 리야 없겠지만, 서구 대 우리, 일본 대 조선의 대비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만이 전부일 리가 없다. 각자의 경험은 독특하지만 나름 ‘서구 과학 기술의 이식’을 겪은(혹은 당한) 사회는 우리만이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과 중심부의 강렬한 대비를 통해 우리가 다른 주변부를 모른다는 점을 깨닫게 한 점이 이 책의 비극적 성과일 것이다.